



즉시 배포용: 2018년 6월 1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아버지의 날(FATHER'S DAY)에 국경에 있는 이민자 가족에 대한 처우를 조사하도록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국장에게 촉구하는 ANDREW M. CUOMO 주지사의 성명서

“올해 아버지의 날(Father's Day), 우리 국경에서 부모로부터 아이들을 떼어놓은 것은 우리 국가의 양심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도 아이들과 떨어지도록 강요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정부의 가족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는 도덕적 실패이자 인간적인 비극입니다. 세 딸의 아버지로서, 저는 국경에서 아이들을 빼앗기는 부모들이 직면하는 두려움과 고통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현재 Trump 대통령은 이 가족들을 자신의 정치적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한 협상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도덕적 정신을 조롱하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종식되어야 합니다.

이달 초에, 나는 이민관세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이 사용한 수치스럽고 어떤 경우에는 불법적인 전술을 조사해 달라고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국장 대행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제는 국장 대행의 부서가 우리 국경 내에 있는 이민 가족에 대한 공격에 대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말해 달라고 촉구합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이민자 공동체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미국 원주민이 아닌 이상 모두 이 나라의 이민자였다는 것을 유념하고 있으며, 우리의 다양성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연방 정부의 이민자에 대한 공격에 맞설 것이며, 이 주와 이 나라를 건설한 미국의 가치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